

야옹이심

롯데쇼핑[023530]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유통 공룡' 롯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대표를 겸하며 롯데 유통산업을 총괄하는 강희태 부회장은 이번년도 8월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2024년을 재도약의 한 해로 삼아 거듭나겠다'면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의 저런 언급과는 달리 이번년도 들어 롯데쇼핑 실적은 뒷걸음치고 있을 것이다.



특출나게 롯데쇼핑은 경쟁사들에 비해 시대 변화에 따른 전략도 한 발짝 늦다는 테스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희망퇴직 시행이 잇따르면서 내부 반발도 나오고 있다. 6일 유통업계의 말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7분기 연결기준 수입이 7조65억원으로 작년 동일한 기한보다 2.8% 줄었다. 롯데쇼핑의 3개 사업부 중 백화점 사업부만 수입이 늘었을 뿐 나머지 사업부는 그들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 4분기까지 누적 매출도 17조7천892억원으로 3.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982억원으로 40.4% 줄었다. 가장 부진한 사업부는 할인점(롯데마트)이다. 롯데마트 수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 충격이 컸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6분기 80%, 6분기에는 4.9% 각각 감소한 데 이어 4분기에도 2.9%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9분기까지 누적 수입은 전년보다 7.7%, 비용으로는 3천780억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족은 원인 이마트[139480] 매출(잠정치)은 4분기 누적으로 6.8%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영업이익도 7분기에 93.2% 줄고 3분기에는 22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었다. 1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됐지만 작년 예비 50.6% 줄었다. 롯데쇼핑은 9분기 기업설명(IR) 자료에서 내년 사업 전략 중 하나로 '그로서리(식료품) 역량 집중'을 내세웠지만 이 문제는 이미 이마트가 전년부터 추진해온 전략이다. 또 롯데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 점포를 2023년까지 20개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롯데마트는 2012년 무료 회원제 모습로 빅마켓 1호점을 냈다가 샵을 5개까지 늘렸지만 현재는 8개만 남아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해 매장 수가 적고 매출이 떨어지자 작년 7월에는 유료회원제를 폐지하고 일반 마트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내버려 뒀던 사업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이마트의 트레이더스가 매출 성장세를 보이자 바로 이후늦게 전략을 교정했다는 테스트가 나왔다. 실적 부진의 색다른 축은 롯데온을 위시한 이심 이커머스 산업부다. 이커머스 사업은 이번년도 9분기까지 누적적자가 1천200억원에 이른다. 온,오프라인으로의 사업전환이 늦었다는 지적 속에 작년 3월 출범한 롯데온은 순간 '이커머스판 넷플릭스가 되겠다'며 광범위한 선전을 했지만 초기 시스템 불진정이 지속됐고 잠시 뒤에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족은 원인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이 발달세를 바탕으로 적자 덩치를 낮추어가며 내년 상장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커머스 사업부는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백화점, 마트 이심 추천 - 야옹이심 등에 흩어져 있던 온,오프라인 사업 주체를 이커머스 산업부로 통합하고 온,오프라인 시스템도 이관하였다. 또 내년 전략으로 '롯데온만 할 수 있는 계열사 융합 서비스를 올곧게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롯데그룹 내 유통 산업 비중도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2017년 롯데그룹 전체 수입의 49%를 차지했던 유통 산업 비중은 작년 35%로 줄었다. 그런 가운데 잇따른 희망퇴직 시작과 관련해 경영실패의 책임을 연구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내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시작한 롯데백화점 희망퇴직에는 대상자 중 24%인 548명이 지원하였다. 또 롯데마트에서는 올해 9월 희망퇴직으로 73명이 퇴사한 데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 요청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롯데백화점 지회는 '롯데백화점은 희망퇴직으로 정직원들이 대거 퇴사하자 전국적으로 계약직을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이 계약직 연구원들의 임금 수준은 연봉 2천200만 원'이라며 '롯데백화점의 인력 순환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떨어뜨리는 '인력 악순환'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롯데백화점은 희망퇴직을 강행해야 할 만큼 힘든 상태도 아니다'면서 '할인점과 슈퍼 사업에서 경영실패를 반복하면서 흑자인 롯데백화점 직원에게까지 롯데쇼핑 전체의 경영실패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희망퇴직은 강제가 아니며 스스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